

심화독서용 서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ook Reviews for Further Readings

민 경 록 (Kyeong-Rok Min)*

목 차

- | | |
|---------------------|-----------------|
| 1. 서론 | 4. 추가 독서를 위한 서평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전래동화 『빨간 모자』의 분석 | |

초 록

서평은 도서의 내용과 서지정보를 제공하여 자료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독자들에게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지원하여 독자지원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어린이 독서분야는 문학 장치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특수성으로, 한 권의 독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비교독서를 통하여 문학적 상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읽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어린이문학작품 중 『빨간 모자』를 사례로, 독서 심화로의 안내를 위한 서평의 '문헌적 비교' 항목 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도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둘째, 『빨간 모자』의 문학적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여 여타의 작품들과의 차이와 독창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빨간 모자』의 서사 구조가 변용된 여타의 작품군(群)에 관한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서사적 구조뿐 아니라 물리적 형태의 변용된 작품이 있을 경우 함께 소개하여 선택과 독서로의 접근의 폭을 넓힌다.

ABSTRACT

A book review expands readers' choice of resources by providing them with the contents and bibliographic data of various books. It also functions as a reader support service designed to enrich their reading experience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children's reading, literary devices are used to convey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children. Therefore, a review for a children's book should help children follow a book with further readings so that they can expand their literary imagination through comparative reading. In light of the above, this study looks into the case of a children's story entitled *Little Red Riding Hood* to identify the point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the "Literature Comparison" section of a book review in order to suggest further readings to readers. First, the review should provide an objective description of the content of *Little Red Riding Hood*. Second, it should explain the literary value of the reviewed book and the discourse that surrounds it so as to analyze its unique features that separate it from other literary works. Third, the review should provide bibliographic information on other works that use narrative structures adapted from those of *Little Red Riding Hood*. Fourth, it should broaden readers' choice and access by introducing, if any, works adapted from *Little Red Riding Hood* into other media.

키워드: 서평, 심화독서, 비교독서, 심화독서용 서평, 사서용 서평

Book Review, Further Readings, Comparative Reading, Review For Further Reading, Review For Librarians

* 청주기적의도서관 관장,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rosemk@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8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8월 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35-59,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3.035]

1. 서론

도서관과 사서는 독서를 통하여 인류가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문화적 창의성을 부가가치로 평가하는 문화콘텐츠의 시대에 독서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면서 사서는 풍부한 독서활동을 위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독서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학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한국 출판 분야에서 문학도서의 발행의 증수는 전체의 21.2%(12,901종)에 이르며(대한출판문화협회 2017), 미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60% 이상이 오락적인 독서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이들은 주로 대중소설류를 찾는다(박은자 2004)고 한다. 이처럼 출판에서 도서관 현장에 이르기까지 문학작품이 독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 작품은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경험과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으므로, 독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도서관의 독자지원서비스 분야에서는 독자들에게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독자 스스로 유연하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대상 도서와 유사한 서사나 다양한 형

태로 창작된 이야기 등의 추가적인 읽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독서분야는 문학 장치를 활용하여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추가적인 읽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풍부한 독서 경험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문학적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독자지원서비스 측면의 어린이 서평에서 다루어야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평은 독자와 독서정보자료를 연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지정보원으로 독서지도의 기능¹⁾도 수행하여야 한다. 독서의 기회를 심화·확장하기 위한 문학 작품의 서평 작성에 있어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문헌적 비교' 부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적 비교' 부문은 다른 문학 작품과의 유사성이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문학적 접근을 유도한다.

하나의 문학 작품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재해석·재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문학적 전략으로 패러디²⁾를 들 수 있다. 패러디 작품은 원작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작가의 새로운 시각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학 전략으로, 원작과의 비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동일한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여타의 패러디 작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대상 작품의 문학적·문헌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현장에서

1) 본 연구자는 서평이 어린이 독서교육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항목을 7가지로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중 '문헌적 비교정보'는 서평 대상 도서의 연계자료에 관한 항목으로 '서평 대상 도서와 동일한 내용을 다룬 다른 미디어로 제작된 자료나 동일 저작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거나 형태 등을 달리하여 출간한 경우 소개하여 다양한 책 읽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어린이도서의 서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5집(2013.9), 491-523(513-514)).

2) 패러디는 기존의 담론과 절대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문학적 전략이다(김현실,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p. 4, 1996).

는 이러한 내용의 서평을 통하여 독자들이 원작과 다른 페러디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주제, 인물의 특성 등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지도)함으로써 다각적인 사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서평이 심화·확장된 독서의 효과를 위한 추가적인 읽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문헌적 비교’ 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어린이문학 작품 중 옛 이야기를 원전으로 하여 새로운 서사 구조나 매체로 변용되어 생성된 문화콘텐츠의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어린이 서평이 어린이문학 작품 원전의 서사를 변용한 페러디 작품과 다른 매체로 전환되어 표현된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독서교육의 효과³⁾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화독서용 서평은 어린이 독서지도를 담당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서, 독서지도사, 교사, 부모 등에게는 훌륭한 독서지도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독자에게는 비교독서를 통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유도하여, 책 읽기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독서의 본질적 기능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독자들이 서평을 읽고 대상 도서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독자지원 서비스 중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서평 작성의

과정에서 ‘문헌적 비교’는 비교독서를 통하여 심화·확장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요소일 것이다.

독서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문학 중 구비문학은 언어로 된 예술작품으로서 인류의 기본 경험을 담고 있는 보편적인 문학 장르로, 언어에 의한 전달이라는 매체의 기호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김정철 2013)하게 된다. 이에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담, 전설, 신화에 기초한 전래동화는 첫째, 다시 쓰기가 용이하다. 즉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의 개별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창작적 첨삭이 이루어지기 쉽다. 둘째, 창의적 유연성이 높다. 캐릭터와 이야기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와 사건을 추가하여 이야기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동화의 캐릭터는 단순하고 강렬하여 어느 장르에나 적용하기가 쉽다. 셋째, 창작적 다시쓰기를 할 때 그 토대가 되는 텍스트의 원저자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영화와 TV물로 만들기가 용이하다(류현주 2013). 이처럼 전래동화는 화자(話者)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전해지는 구비문학의 특성으로 이미 스토리가 많이 알려져 있던 것을 작가의 견해와 해석을 가미하여 서사적인 변용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표현의 매체 변용을 통하여 재창작함으로써 인하여 또 다른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전이나 여타의 페러디 작품을 통한 비교독서는 독자로 하여금 풍부한

3) 방희조, 이인자, 장정운(2011)은 페러디 동화가 원작과의 상호텍스트적인 독해를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사고를 활성화하고 페러디 동화의 유희적 성격이 문학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나아가 창의적인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옛이야기 페러디 동화가 어린이 독서교육에 미치는 효과” 『독서교육연구』, 7: 51-72.

독서의 경험과 해당 작품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옛 이야기 중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르와 매체를 변형하면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빨간 모자』의 서사적 측면과 매체적 측면에서의 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빨간 모자』는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전래동화 중 하나로 다양한 이본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지수(2013)는 『빨간 모자』의 원작과 페러디 동화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학 작품의 인지적·정의적·창의적 영역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다루면서, 원작과 페러디 동화의 병행 독서는 각 작품들의 단점들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가시킬 수 있으므로 원작과 페러디 동화를 함께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병철(2014)은 Perrault와 Grimms의 『빨간 모자』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변화를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상적인 어린이관(觀)제시와 더불어 그에 따른 긍정적인 어린이 교육관(觀)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빨간 모자』의 페러디 작품인 캐서린 스토(Catherine Storr)의 『망토 소녀 폴리』, 마이클 엠벌리(Michael Emberley)의 『루비』 그리고 로알드 달(Roald Dahl)의 『빨간 모자와 늑대』에 등장하는 캐릭터, 배경, 스토리 전개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각 작품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묘사되어지는 어린이의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이상적인 교육관 수립을 위하여서는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서유정(2015)은 Perrault의 『빨간 모자』(Le petit chaperon rouge)를 원형콘텐츠로 삼아, 매체의 변용에 따른 인물과 내용의 변용

이 큰 여섯 작품을 분석하였다. 서사구조의 변화를 꾀한 문학작품 동화, 단편 소설, 소설 판본의 내용 분석과 애니메이션, 판타지 스릴러 영화, 광고 등 표현의 다양성을 통한 다매체적 변용을 분석한 결과 성 역할, 신분 등의 인물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류선정(2016)은 현대 사회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으로 공감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면서, 전래동화를 상품이나 공익광고 스토리의 원전으로 활용한 방법에 주목하였다. 이에 Perrault와 Grimms의 『빨간 모자』를 페러디한 광고들을 서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제시하였다. 민경록(2017)은 Grimms의 『빨간 모자』를 원전으로 한 Janssen의 그림책 『빨간 모자와 늑대』(장순란 2004)와 Hyman의 『빨간 모자』(이진경 2013)의 비교를 통하여 그림책 서평이 독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이미지 상징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루어야 할 시각적 문식성에 관하여 다룬 바 있다. 이처럼 『빨간 모자』를 원전으로 한 콘텐츠의 다양성에 관하여 인문학적·사회학적·예술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빨간 모자』와 같이 다양한 작품군(群)이 전해지고 있는 문학 작품의 서평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문헌적 비교서평과 관련하여 Bloom(2002)은 서평 작성가의 윤리적 책임을 논하면서 '독자들이 작가의 기왕의 작품이나 혹은 가장 잘 알려진 작품과의 중요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거나 다른 작가와 연계된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Kamerman(1978)은 서평가는 '신간도서의 경우 작가의 기왕의 작품과 함께 비교하거나 또는 가능한 동일한 주제

의 작품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동일한 주제의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이 있다면 이들 두 소설의 상대적인 평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서평은 독자로 하여금 독서 대상 도서에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 제공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출판물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출판사, 저자, 매체 유형 등에 있어서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사서의 서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헌적 비교서평은 문학을 원전으로 하여 내용 전개에 변화를 피하거나 전달하는 매체의 변화 등 서사적·매체적 측면의 변용을 통한 문학과 독서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어린이들이 문학작품을 즐겁게 향유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서평은 다양한 버전의 작품과 형태의 문학 콘텐츠 등의 연계된 서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래동화 「빨간 모자」의 분석

3.1 Perrault와 Grimms의 「빨간 모자」

전래동화는 문자에 의한 기록매체로 전달되는 여타의 문학과 달리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구전되어 왔다. 이러한 구술문학의 특징으로 전달하는 화자의 해석과 평가에 의하여 조금씩 변용되어 다양한 버전으로 전달되고, 여러 층위의 의미를 내포(김옥순, 주옥 공역 1998)하여 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가슴으로 전

승되었다. 그 이유는 장르와 서사의 일부 변형은 이루어지지만 핵심이 되는 인문적 사고는 사회·문화의 상황에 유연하게 공감되며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린이 문학작품 중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는 전래동화 중 하나는 「빨간 모자」로 다양한 이본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판본은 Grimms의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는 Perrault의 판본으로부터 시작된다(김옥순, 주옥 공역 1998). Perrault의 「빨간 모자, Le Petit Chaperon rouge」는 1697년에 출간되었고, Grimms의 「빨간 모자, Das Rotkäppchen」는 1812년에 출간되었다. 언어에 의하여 전달되는 구비문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문화적 현상의 변화가 투영되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보전되어 전개되고 있으나 등장인물, 구성에 있어서는 변화되어 전승되고 있다. Perrault와 Grimms는 선과 악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와 '늑대'라는 등장인물의 구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결론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⁴⁾ Perrault의 작품에서는 엄마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빨간 모자가 죽는 비극적 결말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반면에 Grimms는 구원자 '사냥꾼'을 등장시켜 악을 상징하는 늑대를 제거하고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구원하는 해피엔딩의 결론으로 전형적인 동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민경록 2017).

이처럼 어린이문학은 문학의 즐거움과 창의성 발달을 지원하며 동시에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지식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빨간 모

4) Perrault와 Grimms의 작품 「빨간 모자」의 내용 비교는 본 연구자의 '그림책 서평의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1권 제3호(2017), 83-108) 참고.

자」를 패러디한 다양한 작품군(群)과의 비교 독서를 통하여 교육적·문학적 가치의 비중을 분석하고, 시대에 따른 어린이관을 유추(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 「빨간 모자」의 담론과 절대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패러디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를 위하여 작가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부각하였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작품군(群)을 소개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어린이관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무렵으로 그 이전에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어른과 어린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가, 18세기경부터 어린이와 어른의 구별이 심화되면서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시키고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급격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어 18세기 이후부터는 동화에 당시의 이상적인 모델로서의 어린이를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교육적 측면을 강화(서병철 2014)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빨간 모자」는 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어린 소녀들을 위한 계몽교육의 의도를 담고 있는 이야기(서유정 2015)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빨간 모자와 등장인물들의 변화된 묘사를 통하여 어린이관과 어린이교육관의 다양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옛 이야기의 변용은 서사로부터 이를 표현하는 매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가 서사의 구조나 전달 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용되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극적인 구도로 인하여 내용 전개와 초점을 누구에게 두는지, 각 인물들의 관계 설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듯이 「빨간 모자」 이야기도 Perrault와 Grimms로부터 현대의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어린이관(觀)과 그에 따른 어린이교육에 있어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타의 어린이문학들보다 다양한 패러디 작품들이 창작되고 있다(서병철 2014).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 등장인물·배경·소품의 변형, 전개 구성의 변화 등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문학을 자유롭게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의 해석과 평가를 통하여 재해석·재창작된 문학 작품류의 다양한 콘텐츠를 병행하는 것은 훌륭한 독서지도의 방법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 배경, 주제, 구성 등의 흐름이 변용되어진 작품간의 비교독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평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해석과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어린이 문학작품 「빨간 모자」의 관점의 변화, 플롯의 변화 등이 이루어진 작품군(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 전래동화 「빨간 모자」의 변용

「빨간 모자」는 독서의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등장인물, 배경, 서사구조 등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다양하게 재창작되고 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자에 의한 기록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매체로의 다양한 방법 등으

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빨간 모자』의 서사적·매체별 변용의 사례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Grimms 작품과의 변용의 범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평에서는 이러한 문헌적인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빨간 모자』 작품군(群)을 비교 독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가적인 읽기로 안내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심화되고 확장된 독서를 통하여 풍부한 문학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2.1 문학 서사의 변용

문학 장르 중에서 동일한 원전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 서사구조 등을 변용하여 기존의 문학관, 교육관, 가치관 등을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 문학적 성향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어 다양한 서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패러디를 들 수 있다. 패러디는 기존의 담론과 절대적 가치에 대한 다시 생각하기이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문학적 전략(김현실 외 1996)이다. 따라서 『빨간 모자』의 서사 구조의 변용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이야기 전개 과정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의 변화 유형이나 권선징악적 교훈을 대표하는 옛 이야기의 특성에 따른 정의의 승리라는 단선적 구조의 재구조화, 그리고 서사 변용이 단순히 인물, 배경, 주제, 결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등 이야기 변용의 범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빨간 모자』 작품군(群)을 통하여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른 어린이관·어린이교육관의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이는 곧 문학적·문화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1) 화자의 변화 유형

Zipes(2006)는 “페로와 1690년대 여성 작가들이 동화 창작에 매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을 표현하고, 아이들이 사회에서 수행할 역할을 미리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면서, 어린이문학의 도입이 이상적인 어린이관을 제시하는 교육의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의 어린이문학은 문학의 즐거움과 창의성 발달보다 어린이의 도덕적 교육 지원을 우선하였으며, 특히 옛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도덕 교육을 위하여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선과 악의 극명한 이분법적 캐릭터로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에 옛 이야기 속의 극과 극의 캐릭터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녹아들면서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측면으로 조명되면서 서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

옛 이야기는 언제나 ‘주인공’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독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서정오 2001)하게 되는데, 동일한 이야기라도 누구의 ‘시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의 변화는 사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해석(방희조, 이인자, 장정윤 2011)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화자의 변용은 개인의 다양성, 성 역할의 변화, 편견 및 고정관념의 변화 등을 통하여 원작에서 경시되었거나 악인으로 묘사되어 비난받았던 인물을 재평가하고 재해석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어린이 독자에게 기존의

‘빨간 모자’가 전하는 어린이관이나 어린이교육관이 아닌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고의 확장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빨간 모자』의 작품 속에서 가장 극적인 대립의 관계에 있는 등장인물은 선과 악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와 늑대로, 기존의 작품에서는 빨간 모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관점을 늑대로 이동하게 되면 원작과는 다른 결말이나 주제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Negrin의 『천사가 된 늑대: 늑대가 들려주는 빨간 모자 이야기』(박우숙 옮김 2017)는 늑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늑대가 들려주는 빨간 모자 이야기’를 부제로 두어, 기존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전면에서 알리며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독서 경험이 있는 독자들을 향해 ‘내가 알고 있는 빨간 모자의 비밀을 내가 들려줄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냐’라고 하는 것 같다. 이 작품의 서사구조는 Grimms의 『빨간 모자』와 동일하게 숲(모험)-할머니·빨간 모자의 죽음-사냥꾼의 등장-할머니·빨간 모자의 부활(늑대의 죽음)의 과정으로 전개되다가 결론 부분에서 확장형의 전개를 보이고 있다. Grimms의 작품에서는 늑대가 죽고 심부름을 무사히 마친 빨간 모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엄마와의 약속은 잘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끝이 나지만, Negrin의 작품에서는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한 늑대가 하늘의 천사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마무리 된다. 이는 이야기가 늑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가능한 결말이기도 하다. 이야기의 도입부에서는 늑대가 자신을 ‘아돌포’라

고 소개하면서 ‘늑대들은 원래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살도록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라며 늑대가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닌 늑대의 생물학적 특성임을 밝히며 여타의 작품과의 차별화된 해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Grimms의 작품에서 ‘숲’을 위험스러운 공간을 상징하는 것과 달리 Negrin은 늑대가 생활하는 삶의 공간으로 묘사하며 오히려 빨간 모자가 늑대의 공간으로 불쑥 침입하는 궤방꾼으로 보여 진다. 이 작품은 Perrault나 Grimms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전개와 새로운 해석으로, 원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정적 시각이 아닌 늑대의 생물학상의 특성에 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

늑대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또 다른 작품으로 Shaskan의 『늑대가 들려주는 빨간 모자 이야기』(강형복 옮김 2014)가 있다. 이 작품도 제목에서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늑대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임을 알리며, Perrault와 Grimms의 작품과 달리 늑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늑대는 여타의 늑대들과 달리 채식주의자이다. 특히 빨간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굶은 상태임에도 채식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숲 속의 다람쥐,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이다. 그때 마치 빨간 사과처럼 생긴 빨간 모자를 쓴 여자 아이가 나타난 것이다. 채식주의자 늑대와 자기애가 강한 빨간 모자의 이야기는 Perrault, Grimms의 작품이 여자 아이들에게 낯선 남성을 조심하라는 교육적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 이 작품에서 빨간 모자와 늑대의 관계는 선과 악의 상징성이 아닌 우리가 일

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전하고 있다. 즉 늑대는 생물학적으로 육식 동물이지만 채식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그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기애로 가득차서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간을 빗대고 있다. 절대적이라는 기존의 생각으로부터 다른 각도로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는 독후활동지가 첨부되어 있어 작품을 읽고 난 후 원작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전략적 독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상술한 두 작품에서는 Perrault나 Grimms의 『빨간 모자』가 어린이 특히 여자어린이들에게 낯선 남자를 조심하라는 교육의 측면이나 엄마(‘어른’을 상징)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훈육의 측면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엄마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Negrin의 작품에서는 동물 사회(자연계, 생태계)에 침입한 인간, Shaskan의 작품에서는 절대성을 내세워 소수 문화권의 구성원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성향을 가진 소수의 존재에 관한 이해를 전하고 있다. 즉 이야기를 전개하는 관점이 ‘빨간 모자’가 아닌 ‘늑대’로 전환되면서, ‘빨간 모자’ 이야기는 독서의 대상을 어린이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뿐 아니라 확장된 생명 윤리를 통하여 생태계와의 공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빨간 모자』 작품을 소개하는 서평에서는 원전과의 비교 독서를 통한 작품의 주

제, 논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플롯의 변화

권선징악적 교훈을 대표하는 옛 이야기는 힘세고 남을 괴롭히는 난폭한 악인과 비록 작고 불품없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선인과의 극단적인 각을 통하여 정의가 승리하는 전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선 구조의 이야기 전개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옛 이야기(민경록 2008)는 도덕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미취학이나 저학년의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독서매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도덕관에서 확장된 상대성의 개념을 키울 수 있는 독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사건의 전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흐르는 옛 이야기의 구성에 전혀 새로운 전개 방식을 도입하여 원전의 독서 경험이 있는 독자로 하여금 보편적 해석과 평가를 지양하게끔 하는 문학 장치로 메타픽션⁵⁾의 방법을 대체적으로 도입한다. 메타픽션의 장치 중 하나인 패러디는 이러한 플롯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건을 논리적인 맥락에 맞게 재구조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방희조, 이인자, 장정운, 2011)한다. 이러한 문학 작품은 어린이들이 독서 후에 원작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

5) 메타픽션(metafiction)의 특징은 종래의 관습적인 소설양식을 탈피하여 내용과 형식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 질서 정연한 구성이나 리얼리티의 재현 등을 폐기한다. 이러한 소설들에는 진실의 제시나 질서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물들은 무의미하고 파편적인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새로운 의미체계에 회의한다. 이러한 메타픽션은 픽션과 리얼리티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스로가 하나의 인공품임을 의식적,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소설쓰기이다(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국학자료원 제공).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914&cid=41799&categoryId=41800>〉 2018.04.19.

고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원작과 다른 플롯으로 전개되는 유형은 후속담 유형, 결합 유형, 복합 유형으로 나타난다(서정숙, 전효훈 2012). Bradman(2006)의 『빨간 모자의 고민』(안민희 옮김 2008)은 후속담의 유형에 속한다. 늑대에게 속을 뺐했던 빨간 모자가 '앞으로 엄마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며 다짐하는 결말 이후의 이야기이다. 그 이후에도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심심하실까봐 계속 할머니 댁을 방문하지만, 여전히 외로워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빨간 모자의 상심은 더욱 커져간다. 사실 빨간 모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와 나뭇꾼 할아버지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빨간 모자의 노력으로 두 분을 연결시켜 드린다는 이야기이다. 원작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 전개의 흐름이 할머니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빨간 모자가 타인을 위하는 착한 마음씨의 소유자로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원작에서의 교훈을 얻은 빨간 모자가 한층 성장하여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주변을 잘 살피는 배려의 관점으로 재창조되어 전개하고 있다.

『첻! 어떻게 알았지?』(심미아 2010)는 결합·복합유형의 작품으로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늑대뿐 아니라 돼지 삼 형제, 장화 신은 고양이, 개구리 왕자 등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만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작품의 캐릭터들의 원작을 찾아보는 재미를 준다.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만나는 이러한 캐릭터들은 빨간 모자를 납치하거나 유괴하려는 등 다양한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어린이의 안전 교육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빨간 모자를 기존 작품 속에서 그려졌던 성격과 전혀 다르게 능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현대적인 어린이관(觀)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의 전개 구조를 변형하거나 다른 작품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통한 재구성의 형태는 기존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전개와 주제로 유사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서평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에 관한 소개도 첨부하면서 독자들에게 확장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서사 변용의 범위

페러디 동화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등장인물의 초점을 옮기거나 전개의 흐름을 새로이 구성하는 등의 문학적 전략을 활용하여 새로운 해석과 재평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옛 이야기 페러디는 '구전'이라는 특성으로 어렸을적부터 주변에서 자주 들어 그 원작을 이미 알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등장인물의 관점의 변화와 고정 이미지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인식의 전환과 재미를 전할 수 있다. 이는 등장인물, 시공간, 전개 구성 등의 전반적인 변용을 통하여 전통적인 기존의 해석과 판이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야기의 배경인 시공간을 현대로 옮겨온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서애경 옮김 2013)가 있다. '빨간모자' 이야기를 현대의 시공간으로 옮기고 캐릭터의 변형을 통하여 어린이 성폭력의 현실을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옛 이야기에서 위협의 공간으로 상징된 숲을 대신하여 현란하고 화려한 도심 속 쇼핑몰을 묘사하는 등 위협의 요소를 정면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협스러우며 성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온갖 현란한 광고판,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무표정한 얼굴의 수많은 사람들, 음산한 뒷골목의 풍경은 저절로 긴장감을 갖게 한다. 원전에서 악을 상징하는 늑대는 위협스러운 공간에서 불량배를 해치워준 친절을 가장한 젊은 남자로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공간과 인물에 관한 해석을 현대적으로 묘사하고, 판타지적 성향을 제거하여 사실적으로 전개하면서 옛 이야기 '빨간 모자'의 비유적인 표현에 비해 훨씬 노골적으로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민경록 2017). 플롯의 전개에 있어서는 도입부에서 '할머니 인형'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시작되고, 결말에서도 두 개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교육을 통하여 사전에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과정만이 동일하며 작품 전반의 전개가 변용되어, 원작에 대한 독서의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작에서 제시하는 어른들의 말씀에 복종하는 어린이관이 아닌 주체적이고 용맹한 현대적 어린이관을 제시하고 있는 Dahl의 『빨간 모자와 모피 코트』(조병준 옮김 2010)는 대담하고 유쾌한 전개가 시선을 끈다. 페러디 동화 특유의 원작에 대한 독서의 경험을 전제로 하며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한 채 배고픈 늑대가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할머니로

변장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늑대를 보고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멋진 코트를 칭찬하기 시작한다. 원작과 다른 전개에 당황한 늑대는 “틀렸어! 지금은 ‘할머니, 이빨은 왜 그렇게 커졌어요?’라고 말할 차례야. 몰라?”라고 외치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기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오히려 하소연 한다. 당황하던 늑대가 어찌되었든 잡아먹겠다고 하자 빨간 모자는 갑자기 권총을 꺼내들어 늑대를 쏘아 죽이고, 멍청한 빨간모자 대신에 멋진 늑대 모피 코트를 입고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등장 캐릭터의 성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압축하여 전개하고 있어, 원작을 먼저 읽은 후에야 이 작품의 위트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빨간 모자 폴리』(햇살과나무꾼 2000)는 원작에서 이름이 없이 빨간 모자라 불리던 것과 달리 빨간 모자에게 '폴리'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주체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는 폴리와 늑대가 이미 '빨간 모자'를 읽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성미가 급한 늑대는 할머니 댁으로 가려는 폴리를 숲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집 앞에까지 와서 기다린다. 할머니 댁에 간다는 폴리에게 늑대는 할머니 집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런데 폴리는 원작 '빨간 모자' 이야기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여 늑대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머니가 사는 곳을 묻는 늑대에게 시내 건너편에 사신다고 답변을 하거나 할머니 댁이 멀어서 기차를 타고 가다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는 등 엉뚱한 대답을 한다. 이후에도 폴리의 예상을 빗나간 답변으로 허탕을 친 늑대는 '빨간모자' 이야기와 똑같이 전개가 되지 않는 것에 짜증을 낸다. 우여곡절 끝에 폴리의 할

머니 댁에 도착한 늑대는 이번에도 뜻밖의 상황 전개에 당황하게 된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오히려 늑대에게 계속 질문을 하자 화가 난 늑대는 '아냐, 내가 풀리야. 아무튼 할머니는 빗장을 열고 들어오너라라고 말해야 돼'라고 우긴다. 이때 창문을 열고 풀리가 늑대에게 멍청하다고 놀리자 늑대는 '책에 나온 대로 했는데, 왜 잡아먹을 수 없지?'라며 투덜댄다. 그러자 풀리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난 빨간 모자가 아니라 풀리야라며, 작품 속 또 다른 작품으로의 연결을 알리며 현실과 소설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작품에서의 빨간 모자는 기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린 여자아이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이 아닌 지혜롭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인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개성과 능력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존중의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고정적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접근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행동양식은 전통적인 행동규범양식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상적인 어린이의 모델이 과거와 현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다음으로 이야기 들려주기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빨간 모자라니까요!」(이현경 옮김 2005)는 신문을 읽고 싶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빨간 모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의 에피소드로 전개된다. 첫 시작이 "옛날 옛적에 노란 모자 소녀가 살고 있었다"로 시작되면서 독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한다. 이후에도 할아버지는 빨간 모자를 노란 모자, 초록 모자, 검은 모

자로 부르거나 늑대가 아닌 기린, 말 등으로 바꾸는 등 횡설수설 한다. 그럴 때 마다 손녀는 원작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원작과 페러디 동화와의 비교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페이지를 넘길 때 마다 기상천외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전개는 마치 한 편의 콩트를 보는 것 같다. 독자는 새로이 만들어져 전개되는 이야기와 원작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읽는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할아버지에게 투영된 것 같다. 전혀 다른 전개로 오히려 원작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재미를 준다.

상술한 작품들은 특히나 원전의 등장인물, 시공간의 배경, 전개 등이 전혀 새로워 원전의 독서 경험이 없을 경우 그 기발함과 톡톡 튀는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할 수도 있다. 원전과의 비교 독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며, 서평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해설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독서지원서비스의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2.2 매체의 변용

구전으로 전해지는 옛 이야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판본이 전해지는 「빨간 모자」는 서사의 변화와 더불어 전달되는 매체의 변용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활자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과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디지털 영화나 애니

메이션, 방송, 게임 등이 이에 속하며,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은 특정한 정보나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 재창조하는 것으로, 디지털 광고나 이미지, 박물관 등이 이에 속한다(김탁환 2004). 『빨간 모자』는 등장인물, 시공간 등의 변용을 통하여 어린이 교육적 측면이 강한 문학작품에서 다양한 패러디 문학작품으로 지속적으로 재창작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특성상 엔터테인먼트·인포메이션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하게 변용되고 있다.

(1)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변용되면서 서사구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2005년도에 개봉된 Edwards 감독의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진실’은 기존의 동화 『빨간 모자』를 수사극의 구조를 차용하여 추리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작되어 전개된다. 영화가 시작되면서 ‘빨간모자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두 눈 크게 뜨고 책장을 넘겨보자’라는 내레이션을 통하여 원작과는 다른 서사로 전개될 것을 암시하며 관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원작과 동일 부분은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한 후 평상시와 다른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겨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늑대가 빨간 모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장롱 안에 묶여 있던 할머니가 나타나고, 도끼맨이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부터 숲속 마을의 요리책이 모두 도난당하고, 경찰은 도둑을 찾는 과정에서 빨간 모자, 퍼티 할머니, 늑대, 도끼맨을 모두 용의자로 체포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빨간 모자와 늑대, 도끼맨, 할머니가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각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빨간 모자는 원작에서의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와 달리 태권도 유단자로 범인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이고 용감한 캐릭터로 등장하며, 늑대는 무섭게 생긴 이미지와 달리 어리숙한 기자로 변용되어 묘사된다. 그리고 원작에는 없는 토끼가 등장하며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준다.

이 작품에서의 가장 큰 반전은 인물변용으로 늑대나 사냥꾼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원작에 없는 토끼를 등장시키며 악당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사구조에 있어서도 추리의 구조를 도입하여 전혀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으며, 흥겨운 음악과 영상 등으로 책과는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처럼 책이 아닌 다른 매체로도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책 읽기를 꺼리거나 흥미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우선 활자가 아닌 다른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먼저 접하게 한 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권장할 수 있는 독서지도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2) 광고

현대사회에서 마케팅의 핵심은 ‘꿈과 감성’으로, 상품과 서비스에도 감성적 가치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류선정 2016)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광고 분야에서도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하여 동화, 옛 이야기, 우화 등을 원전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전래동화는 이분법적인 단순한 전개로 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누구나 익히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중성, 친숙성을 이미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2013년)에서는 성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어린 소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빨간 모자」를 원형으로 하여 <빨간 모자와 성범죄자 알림e>라는 1분짜리 애니메이션 광고를 제작하였다. 아동성범죄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로, 서사의 구조는 Grimms의 전래동화와 같이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www.mogef.go.kr/kids/study/newstudy_pop10.html).

엄마, 아빠와 살고 있는 빨간 모자의 집에 어느 날 '이웃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고지서가 도착한다. 놀란 엄마와 아빠는 빨간 모자에게 고지서에 명시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 늑대를 조심하라며 주의를 준다. 다음날 할머니 댁에 가던 길에 빨간 모자는 늑대(남자)를 만나게 된다. 어제 엄마, 아빠가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임을 알아챈 빨간 모자는 데려다준다고 말을 거는 남자에게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늑대에게서 벗어난 후, 늑대가 나타났다고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놀라서 도망친 늑대는 그 이후로 어린이가 많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강화된 취업제한제도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원형 콘텐츠와 달리 아빠가 등장한다. 또한 빨간 모자가 늑대를 만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제작하여 보급한 사회(국가)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가정으로부터 사회, 국가 모두 함께 해야 함을 전달하는 공공의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또한 원전에서의 의도와 같게

성범죄 예방교육의 차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원전의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어린이들이 많이 접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4. 추가 독서를 위한 서평

도서관과 사서는 독자들에게 폭 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차정보원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그 중 독자가 독서대상의 실물을 만나기 이전에 적합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事前的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원으로 도서목록과 서평을 들 수 있다. 도서목록은 도서관 장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서평은 그 중 신착 도서, 테마 도서, 추천 도서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선정된 일부의 도서에 한정되어 작성된다. 서평은 독자로서 독서 대상 매체를 직접 접하기 전에 독서의 목적이나 의도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사전(事前)에 대상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을 직접 읽는 것과는 다르다. 도서목록과 서평은 공통적으로 대상 도서에 관한 개괄적인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도서목록이 대상 도서의 검색의 기능, 식별의 기능, 소재지시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서는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까다롭게 대상도서를 분석하여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목록과 서평의 공통적인 역할을 생각해 보면, 목록은 서지데이터로 구성된 MARC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해진 필드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서평은 이러한 데이

터를 문장으로 기술하면서 추가적으로 평가와 제언 그리고 대상 도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확장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도서관의 기본적 업무로 사서들은 당연히 목록작성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평을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서평이 독자에게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독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루어야 할 항목을 앞 절(3절)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4.1 서사적 주기의 추가 독서용 서평

서평은 대상 도서의 내용과 형식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독서지원서비스와 독서자료선택의 보조도구로 활용되어지는 핵심적인 서지정보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대상의 독서매체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문학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달에 있어서 서평자의 주관을 배제한 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Cortada(1998)는 서평 작성에 있어서 서평자들이 독자에게 대상 도서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거나 대상 도서의 주제와 관련된 문학의 큰 범주에서 얼마나 잘 다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한 바 있다.

서평이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문학적 독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유사한 다른 문학 작품이나 매체를 교차하여 읽을 수 있는 비교독서의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예적 비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다루어 포

괄적인 문학적 접근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페리디 작품은 원작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작가의 재해석과 재평가를 부각시키는 문학적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서평 작성 시 원작과의 내용 비교를 다룬 후 독자에게 동일한 원작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서사나 매체가 변용된 작품 등의 추가읽기에 관한 서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풍부하고 확장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앞 절에서 다룬 『빨간 모자』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빨간 모자』의 내용을 객관적이면서도 개략적으로 소개하여야 한다. 이때 서평자의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작가가 저술한 내용 소개보다 서평자의 견해만을 주장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전문적 지식을 투자하여 창작물을 발표한 작가에게 실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내용 소개를 2~3줄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하더라도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작가를 존중하며 대상 도서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대상 도서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평자의 평가와 제언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문학작품의 개략적인 내용 소개 후에는 Perrault나 Grimms의 작품 중 전개 구조를 따르고 있는 작품에 관한 문학 정보를 제공하면서 원전에서 전하고자 하는 어린이관, 어린이교육관을 상기시키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인물, 배경, 구성 등의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Perrault와 Grimms의 작품에서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어린이는 벌을 받는다'는 주요 모티브의 분명한 인과 관계를

설정하여 어린이에게 성숙한 인격체로서의 행위 양식을 강조한 것으로, 『빨간 모자』의 페러디 작품에서는 이러한 모티브 묘사와 기호 내용을 변화시키고 재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교육과 오락, 도덕적 교훈과 사회적 구속을 더 입에 맞도록 바꾸는 것(신명호 2007)이다. 즉 『빨간 모자』의 강한 모티브는 시공간의 변화에도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서애경 옮김 2013), 『첿! 어떻게 알았지?』, 『빨간 모자의 고민』 등은 원작에서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용하여 더욱 강하면서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는 Perrault와 Grimms의 작품과 달리 시공간의 변화를 주어 현대사회의 쇼핑 중심가를 배경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말 부분에서는 Perrault와 Grimms의 두 작품을 모두 도입하여 두 개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낯선 타인을 조심하여야 하고 그 대상은 비록 친절하게 접근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불손한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경계하여야 한다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을 받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하여야 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첿! 어떻게 알았지?』는 어린이의 안전 중에서도 유괴 등의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여성 가족부에서 제작한 영상매체와 연결하여 읽기를 권장하면 좋을 듯하다.

문학 서사의 변용이 있을 경우에는 화자의 변화인지 플롯의 변화인지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의 정도 등을 다룸으로써 작가가 원전과 다른 혹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독자로 하여 독서 전·후에 원전이나 소개되어진 다른 문학 작품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앞 절에서 다른 Negrin과 Shaskan의 작품은 기존 여타의 『빨간 모자』 작품들과 달리 빨간 모자가 아닌 늑대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서평자는 이처럼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의 변용이 독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고정된 관념 즉 성 역할, 개인의 다양성,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등으로부터의 사고의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전개되어진 다른 작품들에 관한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독자에게 풍부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Storr의 『빨간 모자 폴리』는 여타의 『빨간 모자』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빨간 모자'로 부르는 것과 달리 '폴리'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등장인물의 주체성, 독립성, 개별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동일한 연령대의 소녀일지라도 개개인에 따라 성향과 성격이 충분히 다를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서평의 말미에 '왜 빨간 모자 소녀가 아닌 '폴리'라는 이름을 부여하였을까?'에 관하여 생각할 것을 제안하는 것도 권장할 사항이다. 이처럼 서사의 구조에 있어 등장인물의 변화나 화자의 변화가 이루어진 작품의 경우에는 원작과의 비교를 우선한 후 유사한 다른 작품들과의 독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서평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헌적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문학작품이 시대·문화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등장인물 등의 변화를 통하여 인지적·정서적·도덕적 측면의 새로운 해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학의 교육적 전략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Bradman(2006)과 심미아(2010)의 각 작품은 여타의 『빨간 모자』와 비교해 보면 의도적인 플롯의 변화를 통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심미아(2010)는 『빨간 모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수의 옛 이야기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 독자의 독서 경험의 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평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을 소개하거나 힌트를 주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플롯 전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등이 선과 악, 혹은 참과 거짓의 절대성이 아닌 상대적인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전하기도 한다. 이는 원전이 전하는 주제와는 무관하게 전혀 다른 엉뚱한 전개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서사 구조의 변용이 이루어진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원전에서의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된 도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현상이나 사건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평이 독서지원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항목일 것이다. 서사의 변용에 따른 대상 독자층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련하여서도 권장 독자층을 제시하면 좋을 듯하다.

4.2 기타 매체로의 추가 독서용 서평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7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독서율(지난 1년간 일반 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은 59.9%, 학생 91.7%로 1994년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성인과 학생 모두 '일(학교,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성인 32.2%, 학생 29.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은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21.1%),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독서의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독서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독서의 저해요인으로 읽기에 대한 거부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영상 콘텐츠와 같은 도서 이외의 매체로 책과의 연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독서지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책 읽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 도서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미디어로 제작된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여 책(독서)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이나 시청각매체에 익숙해져 독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후 더 나아가 관련 도서를 소개하고, 매체 간의 표현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독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현된 미디어를 통하여 작품의 해석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이에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 서평 대상의 독서매체가 이용이 가능한 다른 물리적 형태의 자료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핀 후, 이러한 서지적 내력의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에게 다양하고 폭 넓은 독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도서의 매체의 변화 등에 관한 서지의 내력을 알려주는 것 또한 작품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따라서 서평 대상 도서가 애니메이션, 광고 등의 다른 매체로 변용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개하여 연계의 계속적인 독서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는 정지된 활자로 표현된 책을 시청각의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강한 독서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체의 변용에 있어서 원전의 구성이나 등장인물, 배경 등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앞 절에서 다룬 『빨간 모자』의 매체의 변용에서는 전혀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빨간 모자와 성범죄자 알림>은 비록 1분의 짧은 애니메이션 광고이지만 원전의 『빨간 모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낯선 남자를 조심하여야 한다는 교훈적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육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보장 장치를 구축하고 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빨간 모자』의 원전에서는 어린이들은 부모(어른)로부터의 교육된 내용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연히 어린이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강한 교육관과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통제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 반면에 이 광고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는 개인의 측면이

아닌 사회·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진실>은 전달 매체의 변용뿐 아니라 서사구조와 플롯 등 전반적으로 변용되어 제작되었다. 영상매체 특유의 시청각의 감각적 전달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원전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변용된 성격은 또 다른 볼거리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진실 혹은 진리라고 알려졌던 것들에 대한 고정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평가하여야 함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사례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독서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딸』, 『모리스 르스모어의 환상적인 날아다니는 책』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으로 각각 제작되어 독자들에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를 대상으로 서평을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 작품과 관련된 다른 물리적 형태의 자료’ 등으로 자료를 안내하여 독서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작품 모두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을 그림책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서지적 내력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우선적으로 영상 등의 다른 매체로 접하게 한 후에 책으로 안내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독서지도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반대로 권문희 작가의 『줄줄이 펜 호랑이』의 경우는 그림책으로 출간된 것을 영상 콘텐츠로 재제작한 것으로, 그림책과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외에도 책과 관련된 전시회 등이 있을 경우 그 시기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권장

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빨간 모자』의 경우에도 2007년에 <‘신데렐라, ‘빨간 모자’가 걸어온 300년展>이라는 전시회가 개최된 적이 있어 이와 관련된 전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폭 넓은 독서의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전시회에서 제공하는 도감이나 팸플릿 등은 해당 작품의 이해를 높이는 훌륭한 정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변용하여 제작할 경우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이나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으로 재창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션·논픽션으로 활용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빨간 모자』 처럼 교육적 측면이 강한 작품의 경우에는 교육용의 지식정보적 활용 매체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문학작품의 부가가치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서평의 구성 항목 중 ‘이용이 가능한 다른 물리적 형태의 자료’에 관한 소개는 시청각 등의 표현 매체의 변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서에 흥미를 유도하고 확장된 독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 대상의 문학작품이 콘텐츠로 제작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대상 독서를 읽기 전 해당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접한 후에 독서로 이끄는 독서지도 안내서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사적 측면에서 변용된 패러디 작품과의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대상 독서매체의 독창성·다양성 등을 도출해 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곧 독서를 통한 사

고력의 심화와 확장의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5. 결 론

서평은 도서의 내용 소개는 물론 서지적 내력과 함께 평가 등의 포괄적인 문헌정보를 제공하는 독자지원서비스의 핵심 정보원 중의 하나이다. 서평은 대상 도서의 내용 및 서지정보를 통하여 자료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독자에게 다각적인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여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지원하는 독자지원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 대상 도서에서 다루는 주제, 등장인물 등을 동일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작품들의 서지정보를 소개하고 이용 가능한 다른 물리적 형태로 표현된 기타의 자료들에 관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평의 기능은 독자들이 한 권의 독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독서를 읽은 후에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지도의 방법 중 하나로 비교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들의 추가적인 독서를 위하여 서평에서 다루어져야 할 체계적인 서지정보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어린이 문학작품 중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는 『빨간 모자』를 사례로 정리하였다. 독자에게 추가적인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빨간 모자』 작품군(群)의 서평에서 다루어져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평 대상 문학 작품인 『빨간 모자』의

내용에 관한 소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학작품의 서평에서는 내용을 간결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이때 서평가는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작가가 작품 저술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전문적 지식을 투자하여 창작한 작품에 대한 존중인 것이다. 대상 도서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평가의 제언이나 평가 등을 논하는 '평가적 정보' 부문에서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둘째, 『빨간 모자』는 구전되는 옛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다양한 페러디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서평 대상 작품 『빨간 모자』의 원전의 문학사적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여 다른 페러디 작품들과의 차이점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빨간 모자』의 대표적 작품인 Perrault와 Grimms의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어린이관과 어린이교육관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유사한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와 독창성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평 대상 작품 『빨간 모자』가 Perrault의 작품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Grimms의 작품관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서도 어린이관을 해석할 수 있고, 사회(어른)가 어린이를 교육하는 관점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가가 여타의 『빨간 모자』 작품들과 달리 해당 작품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게 맞추어 재평가·재창작하였는지를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타의 작품에서 진행된 새로운 해석과 평가에 관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다른 작품으로의 추가적인 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옛

이야기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단순 구조로 등장인물, 배경 등을 바꾸었을 경우 전혀 새로운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페러디한 작품들의 서사의 구조의 변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문학 교육의 자료로서의 역할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처럼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빨간 모자』의 문학사적 가치와 관점 등을 정리·기술하여 서평 대상 작품이 Perrault와 Grimms의 작품 중 누구의 작품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문학관, 어린이관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작품군(群)에는 어떠한 작품들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빨간 모자』의 서사 구조가 변용된 여타의 작품군(群)에 관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 비교독서를 통한 심화·확장된 독서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서사적 구조의 전개뿐만 아니라 물리적 표현 형태가 변용된 작품이 있을 경우 함께 다루어 독자로 하여금 선택과 접근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즉 해당 작품이 영상콘텐츠로 재창작된 사례가 있을 경우 기타 형태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도서목록 작성에 있어서도 생성되어지는 서지정보 중 하나이다. 도서의 형태로 출간된 작품 뿐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전자 파일 등의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된 경우 이를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독서자료 선택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책 읽기를 기피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있는 독자에게도 훌륭한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독서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책에 흥미를 갖도록 지도하는 시기로 책 읽기를 기피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도서 이외의 매체와의

연계 등을 소개하여, 책으로 흥미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부가 가치성이 높게 평가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존의 문학작품이 새로운 이야기나 매체로의 재창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서관계에서는 문학 작품의 원전과 새롭게 재창작된 작품을 연계하여 DB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독서 정보원으로서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평은 자료선택의 기능과 독자지원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책 읽기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관심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들이 작품을 즐겁게 향유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의 작품과 형태의 문학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도서관이 본질적 기능인 책 읽기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역할일 것이다.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들은 위와 같은 서평의 제공은 필요하지만 이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평을 작성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기도 하고,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독서진흥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도서관과 사서는 서평을 기반으로 독자에게 추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원 중 서평과 유사한 것으로 도서목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서목록은 도서관 장서의 서지사항정보, 출판사항정보, 형태사항정보, 주기사항정보 등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실물의 도서를 만나기 이전에 대상 도서에 관한 사전(事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자료선택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서평과 마찬가지로 독자와 독서매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도서관에서의 도서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제공되어지는 도서목록과 서평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항목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도서목록을 작성하듯 서평 작성을 친숙하고 익숙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정철. 2013. 구비동화 텍스트와 삽화에서 아름다움의 묘사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32: 1-21.
- [2] 김탁환. 2004. 디지털시대의 고소설: 고소설과 이야기문학의 미래. 『고소설연구』, 17: 5-28.
- [3] 김현실 외. 1996.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4.
- [4] 대한출판문화협회. 2017. 『2016 출판통계』. [online] [cited 2018. 4. 9.]
<<http://kpa21.or.kr/kpa-data/publishing-info/>>

- [5] 류선정. 2016. 광고에 있어서 전래동화의 페러디 연구: 『빨간 모자』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33: 263-294.
- [6] 류현주. 2013. “다시쓰기로 본 빨간모자의 상호텍스트성.” 『신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2013년 2월 14일, 경산: 경일대학교: 11-18.
- [7]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online] [cited 2018. 4. 9.]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550〉
- [8] 민경록. 2008.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페러디 그림책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2008년 5월 30일,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89-110.
- [9] 민경록. 2013. 어린이도서의 서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5: 491-523.
- [10] 민경록. 2017. 그림책 서평의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83-108.
- [11] 방희조, 이인자, 장정윤. 2011. 옛 이야기 페러디 동화가 어린이 독서교육에 미치는 효과. 『독서교육연구』, 7: 51-72.
- [12] 서병철. 2014. 어린이문학으로서의 동화 『빨간 모자』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변화 연구. 『스토리&이미지텔링』, 8: 11-40.
- [13] 서유정. 2015. 동화 『빨간모자』의 다매체적 변용 연구. 『독어교육』, 62: 291-312.
- [14] 서정숙, 전효훈. 2012. 페러디 그림책의 유형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3): 285-306.
- [15] 서정오. 2001. 옛이야기,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영남대학교 인문연구』, 41: 141-164.
- [16] 신명호. 2007. 『그림책 이미지의 비약: <신데렐라>, <빨간모자>가 걸어온 300년展』. 과주: 네버랜드픽처북 뮤지엄.
- [17] 심미아. 2010. 『챗! 어떻게 알았지?』. 과주: 느림보.
- [18] 여성가족부. 2013. 『빨간 모자와 성범죄자 알림』. [online] [cited 2018. 4. 9.]
〈http://www.mogef.go.kr/kids/study/newstudy_pop10.html〉
- [19] 윤지수. 2013. 『빨간모자』의 페러디 양상과 교육적 가치. 『어문학교육』, 47: 141-162.
- [2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online] [cited 2018. 4. 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914&cid=41799&categoryId=41800>〉
- [21] Bettelheim, B. 1975. *Uses of Enchantment*. 김옥순, 주옥 공역. 1998. 『옛 이야기의 매력2』. 서울: 시공사.
- [22] Bloom, L. Z. 2002. “How to Talk about Heartbreaking Works of Staggering Genius-and Those That Are Not: A Guide to Ethics in Book Reviewing.”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11(1): 7-17.
- [23] Bradman, T. and Warburno, S. 2006. *Red Riding Hood Takes Charge*. 안민희 옮김. 2008. 『빨간 모자의 고민』. 서울: JDM중앙출판사.
- [24] Cortada, J. W. 1998. “Five Ways to be a Terrible Book Reviewer.” *Journal of Scholarly*

- Publishing*, 30(1): 34-37.
- [25] Dahl, R. 1982. *Revolting Rhymes*. 조병준 옮김. 2010. 『백만장자가 된 백설공주』. 서울: 베틀북.
- [26] Edwards, C. directed by. 2012. *빨간모자의 진실(DVD)*. 서울: 케이디미디어 제작.
- [27] Innocenti, R. and Frisch, A. 2012. *The Girl in Red*. 서애경 옮김. 2013.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모자』. 파주: 사계절.
- [28] Kamerman, S. 1978. *Book Reviewing*. Boston: The Writer, Inc.
- [29] Negrin, F. 2003. *In Bacca Al Lupo by Fabian Negrin*. 박우숙 옮김. 2017. 『천사가 된 늑대』. 서울: 사파리.
- [30] Rodari, G. 2003. *Sbagliare le Storie*. 이현경 옮김. 2005. 『빨간 모자라니까요!』. 서울: 문학과학사.
- [31] Saricks and Brown. 1997. *Readers' Advisory Service in the Public Library*. 재인용: 박은자. 2004. 독자자문서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61-289.
- [32] Shaskan, T. S. 2012. *Honestly, Red Riding Hood was Rotten!: The Story of Little Red Riding Hood as Told by the Wolf*. 강형복 옮김. 2014. 『늑대가 들려주는 빨간모자 이야기』. 서울: 키즈엠.
- [33] Storr, C. 1955. *Clever Polly and the Stupid Wolf*. 햇살과 나무꾼 옮김. 2000. 『영리한 폴리와 멍청한 늑대』. 서울: 비룡소.
- [34] Zipes, J. 2006. *Fairy Tales and the Art of Subversion*. 김정아 옮김. 2008. 『동화의 정체』. 파주: 문학동네.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Chong Chol. 2013 "A Study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Beauty In The Fairy Tale Text and Illustration."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in Korea*, 32: 1-21.
- [2] Kim, Tak Hwan. 2004. "The Korean Classical Novel and the Future of Story Literature." *The Research of the Old Korean Novel*, 17: 5-28.
- [3] Kim, Hyun Sil et al. 1996. *A Study on Korean Parody Novels*. Seoul: Kookhak: 4.
- [4]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17. *2016 Publication Statistics*. [online] [cited 2018. 4. 9.] <<http://kpa21.or.kr/kpa-data/publishing-info/>>
- [5] Ryu, Sun Jung. 2016. "The Parody of the Fairy Tale in Advertising: About The Transformation Of Little Red Riding Hood." *The Review of The Study of French Culture*, 33: 263-294.
- [6] Ryu, Hyun Ju. 2013. "Intertextuality of Red Riding Hood Seen as Rewriting." *The New*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Conference, 11-18. 2013년 2월 14일, 경산: 경일대학교.

- [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2017 National Reading Survey』. [online] [cited 2018. 4. 9.]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550>
- [8] Min, Kyeong Rok. 2008. "An Analysis of Parody Picture Books based on Postmodern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ference*, May 30, 2008,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89-110.
- [9] Min, Kyeong Rok. 2013. "A Study on the Book Reviewing Children's Books: Approach to Perspective in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5: 491-523.
- [10] Min, Kyeong Rok. 2017. "A Study on the Visual Literacy for Picture Book Review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83-108.
- [11] Bang, Hyi Jo, Lee, In Ja and Jang, Jung Yoon. 2011. "The Educational Effect of Reading on Children of Traditional Fairy Tales Parodies." *Journal of Reading Education*, 7: 51-72.
- [12] Seo, Byoung Chul. 2014. "A Study on Changes of Storytelling in Little Red Riding Hood as Children's Literature." *Story & Image Telling*, 8: 11-40.
- [13] Seo, Yu Jung. 2015. "A Study on the Multimedia Transformations of the Fairy Tale Rotkappchen." *Korean Magazine for German Teaching*, 62: 291-312.
- [14] Seo, Jeong Sook and Chon, Hyp Hoon. 2012. "Analysis of Parody Picturebooks by Typ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3(3): 285-306.
- [15] Seo, Jung O. 2001. "How to Use Traditional Korean Stories for Children's Writing?"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Yeungnam University*, 41: 141-164.
- [16] Shin, Myoung Ho. 2007. *The Leap of Picture Book Image: Cinderella and Red Riding Hood's 300-year Exhibition*. Paju: Neverland Pickture Book Museum.
- [17] Shim, Mi A. 2010. *Ches! How did you Know?*. Paju: Nurimbo.
- [1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Red Riding Hood and Sex Offender Notification E-mail*. [online] [cited 2018. 4. 9.] <http://www.mogef.go.kr/kids/study/newstudy_pop10.html>
- [19] Yun, Jee Soo. 2013. "Parodies of 『Little Red Riding Hood』 and Their Educational Values." *The Academic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47: 141-162.
- [20] Korean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Dictionary of Literary and Critical Terms*. [online] [cited 2018. 4. 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914&cid=41799&categoryId=41800>>
- [21] Bettelheim, B. 1975. *Uses of Enchantment*. Translated by Kim, Ok Sun and Ju Ok. 1998.

- Seoul: Sigongsa.
- [22] Bloom, L. Z. 2002. "How to Talk about Heartbreaking Works of Staggering Genius-and Those That Are Not: A Guide to Ethics in Book Reviewing."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11(1): 7-17.
- [23] Bradman, T. and Warburno, S. 2006. *Red Riding Hood Takes Charge*. Translated by An, Min Hee. 2008. Seoul: JDM Joongang Publication.
- [24] Cortada, J. W. 1998. "Five Ways to be a Terrible Book Reviewer."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30(1): 34-37.
- [25] Dahl, R. 1982. *Revolting Rhymes*. Translated by Cho, Byung Joon. 2010. Seoul: Betterbooks.
- [26] Edwards, C. directed by. 2012. *Hoodwinked* (DVD). Seoul: KD Media.
- [27] Innocenti, R. and Frisch, A. 2012. *The Girl in Red*. Translated by Seo, Ae Kyung. 2013. Paju: Sakyejul.
- [28] Kamerman, S. 1978. *Book Reviewing*. Boston: The Writer, Inc.
- [29] Negrin, F. 2003. *In Bacca Al Lupo by Fabian Negrin*. Translated by Park, Woo Sook. 2017. Seoul: Sapari.
- [30] Rodari, G. 2003. *Sbagliare le Storie*. Translated by Lee, Hyun Kyung. 2005. Seoul: Moonji.
- [31] Saricks and Brown. 1997. "Readers' Advisory Service in the Public Library." Chicago: ALA. Quoted in Park, On Za. 2004. "A Study on Readers' Advisory Services."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261-289.
- [32] Shaskan, T. S. 2012. *Honestly, Red Riding Hood was Rotten!: The Story of Little Red Riding Hood as Told by the Wolf*. Translated by Kang, Hyoung Bok. 2014. Seoul: Kids-M.
- [33] Storr, C. 1955. *Clever Polly and the Stupid Wolf*. Translated by Sunshine Gwanamuggun. 2000. Seoul: Birongso.
- [34] Zipes, J. 2006. *Fairy Tales and the Art of Subversion*. Translated by Kim, Jeong A. 2008. Paju: Munhak.

